미션리

2026. 9. 4
금요일(주간)
제 871 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1 7월 2일) 본지는 신앙문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21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라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 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3 보도-영광송신교회 화재로 사택 및 예배당 전소

영광송신교회가 지난 8월 29일 오전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목회자 사택과 예배당 및 작업장 시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광주노회 사회봉사부는 "현재 피해 시설은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8 기획특집 - 이수정 순교 14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2

일본 체류 중 도쿄 외국어대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서를 번역한 이수정 선생은 미국교회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목회자 정년제 개선 · 여성 총대 확대 등 이슈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9월 15일부터 서울 도림교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3파전…학력 표기 논란 등 '불씨'

2026년 제111회 예장통합 총회가 오는 9월 15일(화)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열린다.

1,500여 명의 총회총대가 참석하는 이번 111회 총회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황순환, 김한호, 전세광 목사가 출마, 3파전으로 치러진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박기상 장로가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제111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후보 등록과정에서 학력 표기 문제를 둘러싼 자격 논란과 선관위 내부 갈등 등 문제점이 노정 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 운영문제가 첨예의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예장통합은 복음주의인가, 에큐메니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됨으로써 향후 NCCK 등 교회연합운동에 예장통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여성 · 청년의 총회 참여 확대 논의 또한 이번 회기에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여성 총대는 54명으로 전체 1,500여 명 가운데 3.6%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해 109회 총회에서 '총대 10명 이상 노회는 여성총대 1명 이상 의무파송' 안건이 불과 2표 차이(494 대 496) 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쟁점과 관심사는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예장통합 교단 또한 마주하고 있는 '교세감소와 작은 교회 및 목회자 지원'인데,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AI시대의 목회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방향제시, 북한선교 및 통일선교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져, 탈북민 사역자 양성, 전문인 선교 등의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111회 총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헌의안으로는 ▲목회자 정년 · 청빙제도 개선 ▲여성 총대 확대 ▲이단 · 사이비 및 종교의 자유 등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목회자 정년문제는 고령 목회자 증가와 농어촌 및 작은교회의 목회자 부족과 맞물려 민감한 사안이다. 또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여성총대 확대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해 불과 2표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단 · 사이비에 대한 교단 차원의 입장과 대응 역시 주목된다.

앞으로 특정 단체나 주장에 대한 교단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제111회 예장통합 총회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자 정년, 여성총대 확대, 이단 · 사이비 및 종교의 자유 등 3가지 헌의안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10회 총회 모습.

민복운 전남광주본부가 11월 1일의 10만 연합성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

11월 1일 오후 2시30분 광주 금남로서
민족복음화운동 전남광주본부 성회 준비

(사)민족복음화운동 전남 · 광주본부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 금남로 1가~5가 일대에서 '2026 전남 · 광주통합특별시 연합성회'를 개최한다. '특별시 승격 감사 10만 명 연합기도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는 전남 · 광주지역 교회와 성도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번 금남로 성회는 단순한 대규모 집회가 아니다.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300만 명 성회를 준비하는 전초 성회이자, 전남 · 광주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회개와 기도, 성령과 전도로 다시 하나 되는 영적 부흥운동의 출발점이다.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플로74를 거쳐 1977년 '77민족복음화대성회'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37개 교단이 연합해 하루 180만 명, 연인원 750만 명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큰 역사를 이뤘다.

이 성령과 복음전도의 불길을 계승하기 위해 1978년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창립됐으며, 이제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비전이다.

2027 대성회는 한기총 · 한교총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단위와 272개 시 · 군 지역교회의 연합을 통해 회개운동 · 성령운동 · 기도운동 · 전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순례길 광주지부,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모집

9월 11일 호신대서 개강 12월 11일까지 총 12주 강의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지부장 길종원)가 광주 · 호남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과정'을 개설한다.

〈관련기사 5면〉

광주와 호남은 초기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교육 · 의료 · 사회운동을 펼친 한국 근대 선교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곳곳에 교회와 선교사 사택, 교육 · 의료시설 등 소중한 유산이 남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전할 전문 해설 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순례길 광주지부는 이러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오늘의 언어로 생생하게 전하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3기 과정은 오는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호남신학대학교 본관 3층 301호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의의, 호남 기독교 선교의 여명, 광주 최초의 선교사 유진 벨, 광주 기독교 선교와 사회 · 교육운동, 마지막 선교사와 양림동 선교기지, 문화해설의 이론과 실제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장 길종원 장로는 "광주와 호남, 특히 양림선교동산 일원은 한국근대 선교역사의 성지라 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과정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 호남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 3기 과정'이 개설된다. 사진은 지난 1.2기 과정에 참여한 성도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